



첫 승 도전 임준혁 '세 고개' 넘어라

**예측불허 선발 로테이션
쟁쟁한 선발·우천 취소에
등판 미뤄지며 컨디션 난조**

**롯데와의 기 싸움
지난해 4경기 1승1패
평균자책점 8.10**

**들쭉날쭉 야수진
팀 공격·수비 엇박자에
투수들 호투에도 눈물**

‘삼중고’에 빠진 KIA 임준혁이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임준혁은 지난 시즌 위기의 선발진에서 한 자리를 책임지며 9승을 수확, 마운드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선수다. 올 시즌에는 굳건한 선발 양현종에 선발로 복귀한 윤석민, 핵타와 지크라는 든든한 외국인 선수까지 더해져 KIA의 선발진이 새로 구축됐다. 쟁쟁해진 선발진 속 임준혁의 기대감이 깊어졌다. 첫 등판부터 비를 만나면서 로테이션이 꼬였다. 3일 NC와의 원정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김기태 감독이 선발진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5일 LG와의 홈 개막전에서 윤석민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민이 먼저 출격한 선발 로테이션 탓에 임준혁은 12일 SK전에서야 겨우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오랜만에 오른 마

운드였지만 3회도 지키지 못하고 내려와야 했다. 다음을 준비했지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가 임준혁의 등판을 막았다. 지난 16일 넥센과의 홈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지크에 맞춰 선발 로테이션이 밀어졌다. 임준혁은 22일 시작되는 사직원정을 통해서 어렵게 두 번째 등판을 소화하게 됐다. 들쭉날쭉한 임준혁의 로테이션, 경기 감각이 승리를 향한 우선 과제로 주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상대전적도 임준혁을 긴장시킨다. 두 번째 상대로 만나는 롯데와의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이 썩 좋지 못하다. 롯데와의 경기에서 4차례 출격, 1승 1패를 기록한 임준혁의 평균자책점은 8.10을 찍었다. 지난 시즌 롯데전에 나온 투수들 중 가장 높은 평균자책점이다. 상대 타자들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팀

야수진들도 KIA 투수들에게는 복병 아닌 복병이 되고 있다. 세밀함이 부족한 공격 탓에 될 듯 말 듯 풀리지 않는 경기가 많다. 종잡을 수 없는 공격에 벌써 윤석민이 9이닝2실점 완투패를 기록했고, 양현종도 8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한 번씩 나오는 에러도 투수들의 기싸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등판이었던 지난 12일 2회 두 개의 홈런포를 허용하면서 흔들렸던 임준혁은 3회에도 연속 안타와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며 일찍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3회 시작에 유격수 실책이 있었다. 예측 불허의 선발 로테이션, 지난해 아쉬움을 남겼던 롯데와의 기싸움 그리고 야수진의 지원이라는 삼중고 속에 임준혁이 두 번째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속 170km 양키스 히스 슈퍼 보살 ‘ML 최고 속도’

뉴욕 양키스 좌익수 애런 히스(27)가 시속 170km(105.5마일)의 레이저 송구로 홈으로 뛰어드는 주자를 잡아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공인한 분석 시스템 스탯캐스트가 2015년 4월부터 측정된 송구 중 ‘최고 속도’다. 히스는 21일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양키스가 1-3으로

뒤진 4회초 1사 만루 때 언더암론소의 타구를 직접 잡아 강하게 홈 송구를 했다. 빠르게 날아간 공은 포수 브라이언 맥켄의 미트에 꽂혔고, 홈을 파고들던 주자 대니 발렌시아는 태그 아웃됐다. MLB닷컴은 ‘속도’에 주목했다. MLB닷컴은 “히스의 레이저 송구는 시속 105.5마일로 측정됐다. 스탯캐스트가 송구 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2015년

4월 이후 나온 가장 빠른 송구였다”고 밝혔다. 종전 기록은 휴스턴 애스트로스 외야수 카를로스 고메스가 지난해 9월 기록한 시속 103.1마일(166km)이었다. 히스는 지난해 9월 31일 시속 103.07마일(165.9km)짜리 송구를 선보였다. 당시 고메스의 기록에 조금 부족했던 히스는 스탯캐스트 측정 후 최초로 시속 105

마일을 넘어서는 송구로 이 부문 1위로 올라섰다. 히스는 고고 시절까지 시속 150km를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였다. 외야수에 전념한 후에도 강한 어깨는 여전했다. 양키스는 이날 2-5로 패했지만 히스의 송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연합뉴스

추신수 캐치볼 시작 복귀까지 3~5주

종아리를 다친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간 이후 처음으로 훈련을 소화했다. 텍사스 지역 매체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에서 텍사스 구단을 담당하는 제프 윌슨 기사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추신수가 캐치볼 훈련을 시작했고, 복귀까지 3주에서 5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추신수는 예정보다 일찍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추신수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 선발 명단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 시작 직전 종아리 통증을 느껴 명단에서 빠졌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추신수 오른쪽 종아리에 염증이 발견됐고, 다음 날인 11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isabled List)에 이름이 올라갔다. 추신수는 빠른 복귀를 위해 자가힐 주사 시술까지 받았다. 자가힐 주사 시술은 환자 혈액을 채취, 원심분리로 추출한 혈소판을 다시 몸에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연합뉴스

여자농구 간판 변연하 코트 떠난다

“학업·美 지도자 연수 전념”

여자농구 국가대표 간판 포워드 변연하(36)가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 변연하의 소속팀 청주 국민은행은 21일 “변연하가 은퇴를 결정, 앞으로 학업과 지도자 연수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주여고 출신 변연하는 1999년 삼성생명에 입단했으며 2008-2009시즌부터 국민은행으로 옮겨 선수 생활을 계속했다. 1999년 겨울리그 신인상을 받았고 2001년 겨울리그와 2003년 여름리그, 2004년 겨울리그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2006년 챔피언결정전 MVP 등을 수상하며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각광받았다. 국가대표로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부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아시안 게임에 4차례 출전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또 2002년 세계선수권대회 한국이 4강에

화려한 날은 가고

1999년 신인상·MVP 4차례 아시안게임 금·은2 획득 올림픽·세계선수권 등 활약 정규리그 3점슛 1014개 ‘최다’ 한 경기 최다 득점 ‘46점’

오르는 데 힘을 보였으며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한국을 8강까지 끌어올렸다. 국내 리그에서는 정규리그 통산 3점슛 1014개를 성공해 이 부문 최다를 기록했다. 정규리그 통산 545경기에 출전, 평균 14.4점을 넣고 4.2리바운드, 4.1어시스트의 성적을 냈다. 정규리그 통산 득점은 786점으로 정선민 신한은행 코치의 814점에 이어 2위, 어시스트는 2262개로 김지운(2733개), 이미선(2264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08년 1월에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46점을 넣어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3월13일 플레오프 3차전 부천 KEB 하나은행과 경기에서는 3점슛 5개를 포함해 혼자 25점을 넣고 9리바운드, 6어시스트, 3스틸로 맹활약했으나 팀은 65-66으로 분패했고 결국 그 경기가 변연하의 현역 마지막이 됐다. 변연하는 구단을 통해 “팬들에게 성실한 선수로 기억될 수 있는 시점에 코트에서 내려오는 것과 후배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적당한 시기라는 생각이 되를 결정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6-2017시즌 홈 개막전에서 변연하의 공식 은퇴식을 열고 앞으로 지도자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체육고 실력 향상 눈에 띄네

금 23개 전국 체육고대회 3위... 지난해보다 10개 늘어

윤아현 핀수영 2관왕 등

광주체육고가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로 불리는 ‘전국 체육고 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에 올랐다. 광주체육고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열린 ‘제 3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전국 16개 체육고 선수들과의 경쟁을 벌여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광주체육고 윤아현(여·3년)은 수중 핀수영 표면 400m부문에 대회 신기록(3분22초 57)으로 1위에 오르는 등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모일환(2년)도 화성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진 육상 경기(200·

400m)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쁨을 맛봤다. 광주체육고는 이외 양궁·체조 등 10개 종목에서 23개의 금메달을 획득, 전년도(금메달 13개)에 견줘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번 대회가 국내 체육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 16개 시·도 체육고 2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대회라는 점에서 체육중심학교인 광주체육고의 위상을 확인한 대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체육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연습 삼아 뛰었는데... 우승했네요

광주시청 허들 간판 정혜림 전국실업육상 100m 1위

정혜림(여·30·광주시청)이 자신의 주 종목인 허들 100m 경기가 아닌, 100m에 나서 ‘깜짝’ 1위에 올랐다. 정혜림은 21일 충북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 20회 전국실업육상경기’ 대회 여자 일반부 100m 결승에서 11초 87로 1위를 차지했다. 정혜림은 올해 광주시청에 등지를 뜬 여자 육상 100m 허들의 간판이다. 정혜림이 자신의 주종목인 100m 허들이 아닌, 100m에 출전한 데는 스피드를 필요로 하는 100m 허들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훈련으로 생각하며 뛰어들이다가 예상 외의 성적을 받아든 셈이다. 본인 스스로도 예상보다 좋은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그는 오는 23일 자신의 주종목인 100m 허들에 출전, 2관왕에 도전한다. 노승석 광주시청 육상 코치는 “몸 상태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최고기록(13초 06)에 견줄만한 성적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LPGA ‘소녀시대’

이민지 등 최근 3개 대회 우승자 모두 10대 9개 대회 중 최고령은 장하나 23세 10개월



젊은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점령하고 있다. 최근 3개 대회에서는 모두 10대 소녀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가 KIA 클래식과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올랐고, 지난주에는 이민지가 롯데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 당시 리디아 고의 만 나이는 18세 11개월 9일, 이민지의 우승 당시 만 나이는 19세 10개월 20일이다. 리디아 고는 오는 24일 19번째 생일을 맞는다. 베테랑 골퍼이자 워드 클레이턴은 21일(한국시간) LPGA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에서 “랜타카를 빌릴 연령(만 25세)이 안 되는 소녀들이 2016시즌 정상을 휩쓸고 있다”고 놀라워했다. 올해 열린 9개 대회 우승자 중 최고령자는 한국의 장하나다. 코츠 챔피언십에서 이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2승을 거둬 대 그 만 나이는 23세 10개월 4일이었다. 젊어진 LPGA 투어 연령은 한국·한국계 선수들의 돌풍과도 관계가 깊다. 리디아 고와 이민지는 각각 뉴질랜드 고

포, 호주 교포로 한국계다. LPGA 시즌 첫 대회인 퓨어시크 바하마에서는 한국의 김효주가 20세 6개월 7일의 나이에 우승을 차지했다. 장하나 다음으로 많은 나이에 우승한 선수는 한국계 일본인 노무라 하루. 노무라는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23세 2개월 7일의 나이에 우승했다. 작년 신인왕 김세영도 만 나이 23세 1개월 8일에 JTBC 파운더스컵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유일한 비(非) 한국·한국계 우승자인 렉시 톰프슨(미국) 역시 혼다 LPGA 타이틀랜드에서 우승할 때 나이가 21세 18일로 젊었다. 클레이턴 기사는 “올 시즌 우승자 평균 연령은 20세”라고 강조했다. 시야를 LPGA 투어 우승자가 아닌 세계 상위랭커로 넓혀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세계랭킹 10위 안에는 리디아 고보다 어린 선수가 있다. 세계랭킹 7위인 브룩 헨더슨(캐나다)은 1997년 9월 10일생으로 현재 만 18세다. 1985년 2월 16일생인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세계랭킹 4위)가 10위권 내 유일한 30대다. 올해 LPGA 투어에 정식 데뷔한 1994년 8월 10일생 한국의 신인 전인지도 세계랭킹 6위에 올라 장창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